

월간 범어교회보 Vol. 438

늘 푸른 숲

2025. 12

대림절, 왕이신 예수를 기다리며

새가족 만남의 날, 다시 만난 하나님!

내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One Thing)

기적을 넘어, 동역의 새 비전을 품고

최원용 목사 인터뷰

‘목사 안수 후 첫 세례, 결혼의 시작’

포토에세이



MERRY CHRISTMAS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온몸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환대



이지훈 담임목사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리서치에서 2022년 12월, 주요 종교에 대한 국민 호감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참여자 중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표한 분들은 3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개신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가 전체의 49%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명 중 3명이 교회에 호감이 있고, 5명은 매우 싫어하고 나머지 2명은 관심이 없거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내 기독교 인구를 전체 인구의 대략 20% 정도로 추측하기에 수치상으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 중 고작 10%가 교회에 호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싫어하는 세상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제 머리에 떠오른 단어는 ‘환대’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을 기꺼이 대접하고 섬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벽면에 박혀 있는 불빛들이 인상 깊어서 무슨 의미인지 원로목사님께 여쭙봤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이 불빛들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창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갇혀서 우리만 행복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환대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환대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환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그 환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사는 우리를 여전히 환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2025년도를 돌아보며 내 삶에 주변을 향한 환대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점검하며 2026년도를 기대하며 환대를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점차 환대를 베풀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2월을 열며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하얀 숨결이 번지는 겨울빛 속에서 문득 묻는다.
2025년, 나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사랑이 무얼까? 알 것 같으면서도 끝내 다 닿지 않는, 익숙하면서도 참 알 수 없는 그 무엇.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다. “사랑이 대체 뭡까요?”

깡년기에 접어들며 잠이 깊이 들지 않는 밤들이 이어졌다. 좀처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던 어느 새벽, 문득 남편의 오랜 고충이 온몸으로 밀려왔다. 잠에 예민했던 그가 견뎌온 날들의 무게가 그제야 가슴 깊이 스며들었고 알 수 없는 눈물이 베개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처음’이었다. 그런가보다 무심히 여겼던 그의 고충에 가슴이 메어진 것은. 그날의 눈물은 무엇이였을까. 늦게야 찾아온 미안함이었을까. 인간의 어찌 안 되는 무정함의 탄식이었을까. 눈물이 베개 너를 적시던 그날도 물었다. “아버지, 사랑이 무엇가요”

잃어버린 자리엔 채워짐의 은혜가 있다. 비워진 눈물의 자리에 사랑이 스며드는 신비가 있다. 잠을 잃어본 뒤에야, 한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조용히 피어오르듯.

사랑이란 그런 것일까.
내가 작아지고 약해져 마음 한곳이 텅 비어지며 비로소 스며드는 것.
십자가의 사랑도 가장 연약한 순간, 모든 것을 비워내어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었듯이.

여전히 사랑을 잘 모르겠다. 다만,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게 사랑이란 것만은 알 듯.
그래서 매 순간 그분께 묻고 기대며 걸어가야 하는지도 모른다.

사랑 없음에 가슴을 치며, 미안함에 젖은 눈물 한 방울씩 사랑의 그릇에 담아가며,
사랑의 때를 일깨우실 하나님의 때에 마음을 맡기고
사랑 없는 나를 탓하기보다, 때마다 사랑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는 것.
어쩌면 사랑은 이렇게 천천히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빈 가슴을 가득 채워주시길.
가득 담겨진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19)

•허윤정 집사(교회보팀)

2025 December | Vol. 438

CONTENTS

- 02 포토에세이
- 03 목양칼럼
- 04 12월을 열며 _ 허윤정 집사
- 05 목차
- 06 절기 | 대림절, 왕이신 예수를 기다리며 _ 박광우 목사
- 08 새가족 간증 | 새로운 만남, 주님과 함께! _ 김혜현 집사, 정진덕 집사
- 10 추수감사절 찬양축제 | 김성애B 집사
- 12 가정세미나 간증 | 장수아 집사, 박경진 집사
- 14 내 영혼의 찬양 |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One Thing) _ 곽소정 전도사
- 16 나의 한 구절 | 박혜린 청년
- 18 선교 | 기적을 넘어, 동역의 새 비전을 품고 _ 하용병 선교사
- 22 공감의 장 | 내 삶을 새롭게 빛으신, 제자 훈련 _ 채정애 집사
- 24 인터뷰 | 목사 안수 후 첫 세례, 결혼의 시작 _ 최원용 목사
- 27 책 소개 | 산책(冊), 우리 같이 걸을까요?
- 28 행사단신 | 11월의 범어
- 30 범어 '인(人)'의 얼굴 / 범어범어
- 31 범어동정 / 행사 안내

제438호 | 발행일 2025년 12월 7일

발행인 이지훈 | 편집인 이영규 | 2025년 교회 표어 “아름다운 동행”

주소 42083 대구 수성구 청호로84길 71 | <http://pomo.net>

Tel. 053) 667 8800 | Fax. 053) 667 8888

대림절, 왕이신 예수를 기다리며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늘 바쁘고 분주하다. 특히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 기다림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챗지피티(ChatGPT)’를 검색해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너무도 쉽고 빠르게 얻는다. 그렇다 보니 문제의 답을 천천히 찾아가거나 오래 기다리는 일은 어느새 뒤쳐진 듯한 느낌을 주고, 우리의 일상과도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다. 그러나 무조건 빨리 답을 얻거나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매일 먹는 밥은 마지막 톱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밥맛이 아주 좋다. 톱 들이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면 맛있는 밥을 기대할 수 없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기다림’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믿으면 기다리게 되지만, 믿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는 것이다.

매년 12월이 다가오면 크리스마스로 더욱 분주해진다. 그러나 성탄절을 맞기 전에 우리는 먼저 대림절의 4주를 지나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왜 4주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냐”고

묻지만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성탄절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림절은 빠르게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기다림 속에서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림절을 어떻게 기다리며 보내야 할까?

대림절은 4세기 말 스페인과 갈리아 지방에서 성탄을 앞두고 6주간 참회의 금식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6세기 무렵 로마와 라벤나에서 교회력 안에 본격적으로 포함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쁨의 시기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대교황에 의해 지금의 형태인 4주간의 대림절로 정립되었다.

대림절(待臨節, Advent)은 말 그대로 ‘**임하심을 기다리는 시기**’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기다리는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영어 Advent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왔으며 ‘오다’ ‘도착하다’를 뜻한다. 2025년 대림절은 11월 30일(주일)부터 12월 24일(수요일)까지 이어지는 성탄절 전 4주간의 절기로,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동시에 ‘아직’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그렇다면 대림절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대림절은 트리를 꾸미고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때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와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왕이신 예수께서 오시는데 더럽고 울퉁불퉁한 길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왕의 길을 평탄하게 하듯,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한다. 올 한 해 마음에 쌓인 미움과 탐욕, 교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이 기간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지금,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며 “나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진정으로 재림을 사모한다면 세상의 유혹과 안락함에 안주할 수 없다. 목회자인 나부터 먼저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한다. 연말이 되면 모임과 식사로 더욱 분주해지기 쉽지만, 이때일수록 잠시 멈추어 삶의 속도를 낮춰야 한다.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사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이웃, 외로운 이들,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다. 그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대림절을 준비하는 참된 태도이다. 이번 2025년 대림절을 통해 초대 교회의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며,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새로운 만남, 주님과 함께!

수확의 계절, 감사가 깊어가는 11월의 첫 주일 오후에 새가족을 위한 따뜻한 환영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정’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웠고, 이어진 친교의 자리에서는 웃음과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새롭게 더해진 모든 가족들이 그 사랑 안에서 더 뜨겁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 같습니다.

새가족 만남의 날, 다시 만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만남의 날’이 열린 날입니다. 새가족 특송 연습으로 찬양대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아직은 낯설고 어색한 공간이었지만, 새가족부에서 처음 만났던 권사님을 다시 뵈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아는 얼굴보다 모르는 얼굴이 많았지만, ‘새가족’이라는 같은 이름 아래 서로를 향한 미소가 자연스레 오갔고, 덕분에 찬양을 연습하는 시간부터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로웠습니다.

이윽고 예배 시간이 되어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고 보니, 멀리서 작게만 보이던 십자가가 유난히 크고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또렷이 보여서 나도 모르게 찬양을 따라 부르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신영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저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한 집사님의 간증에서 그분의 고민과 신앙 여정이 진솔하게 전해져, 저 역시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더욱 성실히 이어가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특송 시간.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찬양이 흘러나오자 손뼉치며 함께 불러주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새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환대와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의 시간은 또 하나의 감동이었습니다. 2층 예배당에서 1층 식당으로 내려가는 길목마다 모든 교역자분들이 서서 환한 미소와 박수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손인사와 박수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떠나 한동안 신앙의 자리를 잃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단순한 환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공동체로 부르시는 초대였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새가족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사랑방 모임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 김혜현 집사(디모데청년회)

눈물로 드린 첫 예배, 공동체의 품으로!

범어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가 생각납니다. 지난 삶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며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위로와 감동이 교차하며 아픔과 상처가 치유와 회복으로 임했고, 그러면서 회개와 찢림이 있었습니다. 찢림을 받은 그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등록을 두고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밀물처럼 내 마음을 동여맸습니다. 당분간 기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등록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등록을 하고 나니 보는 시야와 초점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 범어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 십자가가 무엇인지 준비하는 신부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6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후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에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11월 첫 주 새가족 만남의 날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왔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고. 특히,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믿음을 닮을 수밖에 없음을 ‘유전’이라는 용어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이는 어떤 정신적 물질적 유산보다 먼저임을 강조하심에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여진 친교의 시간에서 부부가 함께한 새가족을 보며, 아내와 서로 다른 두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음에 불편함으로 자리잡았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을 만들어주시길 믿고 기도하는 바람도 생겼습니다.

새가족을 섬기는 목사님과 여러 섬기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범어교회 공동체에서 잘 적응하며 주님의 사명자로 잘 쓰임 받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 정진덕 집사(예사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인생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길



"춤추며 찬양하라!"

목사님의 짧고도 강렬한 말씀 선포를 시작으로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가 시작되었다. 사회자 김대진 집사님의 재치 있는 입담과 더불어 각 부서의 열정적인 무대를 통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웃고 즐기는 그야말로 축제의 장이었다.

신나는 찬양에 맞춰 부채춤을 선보이며 '감사하는 당신이 천국멋쟁이'라는 메시지가 인상적이었던 바울청년회에 이어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하사모의 찬양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트위스트를 추며 기쁨과 감사를 온몸으로 표현한 성사모와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찬양과 춤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디모데청년회의 무대가 차례로 이어졌다.

바라만 보아도 흐뭇한 영어예배부 아이들은 영어찬양에 맞춰 파워댄스를 선보였고, 꽃 같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수화찬양과 신나는 율동을 준비한 베드로청년회의 무대는 행복한 미소를 짓게 했다.

빨간 옷에 알록달록한 가발이 예사롭지 않았던 예사모는 파워 넘치는 찬양에 맞춰 온몸으로 찬양했고, 무대 중 사탕을 나눠주는 센스가 인상적이었던 청년부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고백했다. 뒤이어 사랑스러운 핑크빛 옷에 알록달록한 장갑을 끼고 온몸으로 찬양하는 모세대학 어르신들의 무대에서는 그 누구 못지않은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어린이처럼 순수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교역자들의 위트있는 특별 무대를 마지막으로, 1위 디모데청년회, 2위 모세대학, 3위 영어예배부로 찬양 축제의 막을 내렸다.

순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모두가 열심을 다해 춤추며 찬양했던 2시간 동안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이었다. 천국에서의 기쁨을 맛본 듯 예배당을 떠나는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삶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매일이 오늘 같은 축제의 날 이기를 소망한다.

• 김성애B 집사(교회보팀)



가정의 신앙교육과 가정예배의 중요성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처음 커다란 가정 세미나 현수막을 봤을 때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부끄럽지만 아이들 방학과 함께 놓아버린 가정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들으며 나의 지난 삶과 가정예배를 되돌아보니 내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강조하기만 했던 모습, 깜박 잊어버리기도 하고 숙제처럼 미루기도 하면서 ‘해내고’ 있었던 가정예배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강조만 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강사님의 말이 꼭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설명서, 말씀이라는 답안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이 쉬운 문제를 두고 저는 저의 방법으로 살아보려 하니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좋은 싫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옴을 느낍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불안의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길, 세상적인 편안함을 바라며 생겼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평안한 삶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내 뜻대로 자녀들이 자라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고난을 반

겨 맞이할 사람은 없겠지만 잘 지나고 보면 조금 더 나를 ‘거룩’이라는 삶으로 이끄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무척 기대됩니다. 우리 모두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가정들 되길 소망합니다.

• 장수아 집사(베드로청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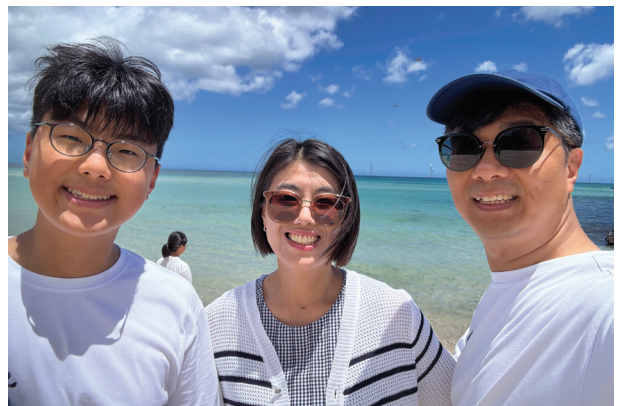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자녀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소진희 교수님의 특강을 듣고 나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나를 내려놓고, 나의 삶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는 신앙교육의 도구가 아니라 호흡의 기초입니다. 가정예배 자체가 목적인데 가정예배를 신앙교육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일주일에 네 번 정도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가정예배를 단순한 신앙교육의 도구로 삼지 않고, 우리 가정의 귀한 목적이자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마음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주인으로 삼을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다녔지만,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다른 가치가 삶의 주인이었던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롬 12:2)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도, 자녀 양육도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8) 내 인생도, 내 자녀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며 일상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돌아보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도 ‘만나’와 같은 기적이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은혜를 일상으로 여긴 적이 많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고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삶을 돌보고 이끌어 주시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단순히 ‘행복한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삶 속에서 자녀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박경진 집사(바울청년회)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One Thing)

중학교 3학년 때, 제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고, 그분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순수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제 삶을 선하게 인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작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글쓰기가 뛰어나지 못하지만, 제 삶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자존감이 매우 낮은 아이였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라왔고,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점점 잃어갔습니다. 무엇 하나 잘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제 삶이 회복되는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면서, 꿈도 소망도 없이 지내던 저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고 싶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했던 저는 노래 부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교회 찬양팀에서 보컬로 섬기기 시작했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찬양 인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라는 고민이 깊어졌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말씀에 대한 목마

름은 자연스럽게 신학대학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기로 결심하기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결정을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의 반대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그 시간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결국 부모님은 제 결정을 믿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결정을 하기까지 긴 시간 옆에서 함께해 준 남자친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이 붙들어 주셔서 결혼까지 순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음악을 좋아했던 저는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 갈망은 말씀으로 향했습니다. 말씀은 제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귀기로 나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찬양 인도자로 서는 매 순간, 저는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리이며,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제게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서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단지 목소리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곽소정 전도사

소원 (One Thing)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천 날 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움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正義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24)



하나님께서서는 정의를 그분의 백성 공동체의 삶 전체에 깊이 심어 놓으셨다.
구약성경의 율법과 예언서 곳곳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는 명령이 반복된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제도와 경제, 사법체계, 그리고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
공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구석구석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정의란 무엇인가 / 팀 켈러」



법과 제도, 정책을 통한 거대한 정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과 시간에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는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된다.

싫어하는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삶.
자신을 쫓아오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는 판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예수님으로 찾아오셨듯,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정의는
일상의 세밀하고 따스한 음성으로 찾아오신다.

크고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고 불이 나도
그분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신다.

오히려 한숨을 내쉬는 순간,
나의 발걸음이 닿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정의를 이뤄가신다.

• 박혜린 청년(청년1부)

기적을 넘어, 동역의 새 비전을 품고

19년간의 아름다운 열매, 지속적인 동역을 위하여 캄보디아선교 19년 동안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역해준 범어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범어교회는 19년 전 하용병, 김은주 선교사를 캄보디아로 파송하여 복음 전



파와 교회 개척, 센터 사역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지에는 헌신적인 목회자와 리더들이 세워져 굳건히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캄보디아 현지 목회자 및 교회 리더 초청은 10월 15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진행되었으며, 현지 지도자 10분이 한국선교대회에 초청받아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방문의 목적은 그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한국 교회의 예배와 사역 현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역의 새로운 비전

과 도전을 얻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회의 깊이 있는 예배와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따뜻한 섬김을 경험하며 놀라움과 감격 속에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물로 심은 기적의 간증 - '악함'에서 '비전'으로

캄보디아 리더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된 기적 그 자체입니다. 다음은 그들의 진솔한 간증 중 일부입니다.

럼롱 목회자(65세) : 성경 종이로 담배를 말아 피우던 자가 목자가 되기까지

신앙을 갖기 전, 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아내와 자녀들을 학대하던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주신 신약성경을 받아, 그 얇은 종이를 담배를 말아 피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찢어 피우다가 약 30장 정도가 남았을 때,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꿰뚫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1999년의 일이었습니다. 악함으로 가득했던 제 삶은 사랑과 온유함으로 바뀌었고, 결국 온 가족(아내, 자녀 5명, 손주 9명)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를 신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한국 교회와 웰컴센터 그리고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비전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씨은 목회자(31세) : 기도로 응답받은 기적의 유학

저희 가족은 마을과 집을 지키는 귀신, 조상귀신 등 여러 영들을 믿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의지했던 여러 영들은 종종 아이들을 아프게 했고 무서워 울었습니다. 그러면, 제 아버지는 살아있는 닭을 준비해 그 영들에게 바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아무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악령이 사탄의 속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8년, 복음을 전하는 부부를 통해 저와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후 아버지께서는 제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저는 캄퐁툼 도시로 유학을 가고 싶었지만 머물 곳도 도울 자도 없어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나 웰컴센터에서 무료로 숙식과 공부를 지원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교회가 지금 약해졌지만, 순종하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신 것처럼 캄보디아에도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짬 목회자(46세) :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다

하나님을 믿기 전, 제 삶은 슬픔과 잦은 질병으로 가득했고, 저는 무당에게 의지하고 마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영화와 복음을 접한 후, 저는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만성 코피를 낫게 해 주시라"고 은밀히 기도했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법책을 버린 후, 사탄은 가족에게 많은 질병과 문제를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타피우 마을에 교회를 개척했지



만, 처음에는 전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많이 두려웠고, 3명의 성도가 죽는 큰 문제로 믿지 않는 자들의 박해도 겪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 마을 집을 빌렸는데 집주인은 아이들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격려와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웰컴센터와 한국 교회를 통해 신학 공부와 예배할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아이들을 위한 간식마저도 어느 권사님을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응답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 감격 소감

한국을 방문한 10명의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에서 경험한 놀라운 은혜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1. 친절한 섬김과 사랑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상냥하며, 특히 어르신들이 세심하게 모든 것을 챙겨주셨습니다.”(찐다, 비썬)

“목사님들과 교회가 저희를 잘 돌봐주셔서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따뜻하고 설레고 행복했습니다.”(씨븐)

“따뜻하게 맞아주신 한국 교회와 모든 동역자분께 감사드립니다.”(타리)



2. 살아있는 예배와 비전

“한국 교회의 예배는 찬양과 말씀, 간증에 성령이 충만함을 느꼈습니다.”(안니)

“목사님은 저에게 훌륭한 예배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임재를 경험했습니다.”(씨븐)

“기도, 찬양, 손님 접대, 설교 등 교회의 질서 있는 조직을 보았고, 특히 교회가 보여준 존중과 섬김에 감동했습니다.”(라찬)

3. 새로운 도전과 적용

“한국 교회는 좋은 조직, 체계적인 제자 양성,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관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안니, 찐다)

“저희는 이 모범을 제 나라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관대함과 체계적인 제자 훈련을 통해 캄보디아 교회를 세우겠습니다.”(찐다, 안니)

캄보디아 리더들의 헌신과 기도 제목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강한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헌신과 섬김은 저희에게 큰 꿈과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캄보디아로 돌아가 다음과 같이 헌신하고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복음 전파와 말씀 사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기 위해 힘쓰겠습니다.”(쩨다, 씨은)

2. 교회와 공동체 섬김 “교회를 사랑으로 잘 돌보고 섬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배운 희생과 나눔, 그리고 사랑을 공동체에 적용하겠습니다.”(씨은, 타리)

3. 다음 세대 양육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실천하고 격려하겠습니다.”(라찬)

“캄보디아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얀니)



섬김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현지 지도자들에게 영적·목회적 재충전을 제공했으며, 다양한 사역 모델을 습득하게 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와 캄보디아 교회의 지속적인 선교 동역을 강화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동역의 역사는 19년 전 시작되었습니다. 부족한 하용병, 김은주 선교사를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하시어 지금까지 변함없이 믿어주시고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 일에 굳건히 동역해주신 범어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분의 헌신적인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나누어 주신 섬김이야말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도를 깊이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감동과 사랑은 캄보디아 현지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함께 동역하신 모든 분의 삶과 사역 위에 충만하도록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캄보디아 영혼들을 향한 기도와 뜨거운 동역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15명의 목회자와 14명의 리더들의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한 발이 될 차량(2만불)이 구입되어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용병 선교사

내 삶을 새롭게 빚으신, 제자 훈련

제자 훈련 수료를 앞두고 지난 시간이 떠오르며 마음이 새롭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 전의 저의 모습은 솔직히 ‘선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와 저는 아주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 기도해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고, 기도도 잘 안되고 말씀을 듣지만 지쳐 있는 내 마음을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지 않으시던 부친이 소천 하시면서 저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회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21기를 남편과 같이 신청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씩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마음에도 신앙생활의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은 평일반도 있었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남편과 함께 주일반을 신청하였고, 주일 식당 봉사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때로는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생들과 나누는 나의 신앙고백부터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듭난 사람, 믿음, 그리스도인의 성화, 순종, 봉사,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등 주제별로 이루어진 제자 훈련은 부족했던 저의 신앙에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매주 수행해야 할 제자 훈련 과제들이 많이 부담되기도 했지만, 과제를 하면서 주신 은혜는 부담감도 잊게 하셨고 성경 통독과 QT 생

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부족한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 훈련 교재를 공부하고 QT나 설교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 교만한 모습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제가 주인 된 모습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나 됨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쓴 뿌리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주님은 저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관계도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생각지 못한 저의 온전하지 못한 편견의 마음들도 세심한 손길로 치료하시고 만져 주셨습니다.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눈과 마음이 어두워 깨닫지 못했고, 훈련 과정을 통해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자 훈련을 계기로 내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담임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사역반도 신청하려 합니다.

지난 시간 제자 7반 훈련생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분 한분 삶의 귀한 나눔과 고백을 통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제자 7반 장철웅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밀 친구’로 스스럼 없이 자신의 약점과 허물까지 나눠주신 따뜻한 섬김 덕분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미성숙한 저를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채정애 집사(바울청년회)



목사 안수 후 첫 세례, 결혼의 시작

올해 인터뷰 코너는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계기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담고자 합니다.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한 번째 순서로 실버교구를 섬기시는 **최원용 목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Q. 목사님의 유년 시절은 어떠하셨나요?

A. 저는 김제 죽산에서 태어나 농사를 주업으로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삼남매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정화수를 떠 놓고 비시던 분이셨는데,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떡 권사님’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부모님을 거쳐 저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릴 때 운동을 좋아해 육상부와 농구부에서 활동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은 가정형편의 어려움과 사춘기의 혼란이 겹쳐 마음이 어두운 시기였는데 독학으로 배운 통기타가 그 시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은 지금까지도 제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곡입니다.

Q.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나요?

A. 모태신앙으로 자라 교회는 늘 익숙한 공간이었고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활동도 성실히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신앙이 ‘습관’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시기였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된 결정적인 시기는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친구들과 놀다 돌아오는 길

에 산 위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순간,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고, 제 삶의 방향이 조금씩 하나님께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에는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특히 찬양을 통해 큰 은혜를 주셔서 “저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대 후 정말로 고향 죽산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기게 되었지요.

Q. 목회로 들어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원래 제 꿈은 체육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군산대학교 체육학과로 입학했고,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3학년 때부터 금산에 있는 원평초등학교에서 2년 반 동안 수영 강사로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

모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 교실 밖에서 폭력적이고 거칠어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교장 선생님께 여쭙보니 1/3 정도가 편부, 편모, 조부모 아래에서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가 되고 싶다고 길을 알려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처음엔 웃으면서 “하지 마. 원래 하려고 하던 거 해.” 그러셨는데 제가 간곡하게 다

시 부탁드렸더니 한 달간 같이 기도해보고 그래도 목회를 하고 싶으면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걱정 기도를 한 뒤에도 여전히 제겐 그 열망이 더 커졌고 목사님께 말씀드리니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신대원에 지원했지만 첫해에 불합격했고,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제 교만을 꺾으시고 진짜 준비를 요구하셨어요. 재수하는 1년 동안 성경을 내 삶의 일부처럼 깊이 읽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을 완독하고 난 후,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왜 실패를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Q. 하나님을 만날 때 도움을 주신 분이냐 닮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A. 가장 먼저는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은 삶 자체가 신앙이셨고, 기도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난 박진호 선생님이 기억나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셨어요. 그 이후엔 고향교회 담임목사님이 제 신앙과 목회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안내자가 되어주셨어요. 신대원을 준비할 때부터 첫 사역지에 들어서기까지 실제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깊이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리고故 옥한흠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훈련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며 양육하셨던 모습에서 제가 목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감당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책이 제게 큰 영적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 때마다 설교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리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Q. 신학대학원 졸업 이후 어떻게 범어교회로 오시게 되었나요?

A. 신대원 입학 후 첫 사역은 고향 교회인 죽산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이후에는 담임목사님께서 서울 가서 목회를 좀 배우라고 하셔서 강동구 녹원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게 되었구요. 거기서 3년을 지낸 후 제자훈련을 배우기 위해 전주 사랑의교회로 옮겨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랑의교회에 있을 때 목사 안수도 받고 결혼도 했네요. 결혼은 사랑의교회 시절에 했지만, 아내를 만난 건 녹원교회에 있을 때 만났습니다. 장모님의 반대가 심했는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연락이 오셨어요.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님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의 외조부께

서 “아멘”하셔서 목사 안수받고 처음으로 세례를 행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결혼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고요. ^^ 이후에 제자훈련을 더 배우고자 잠실에 있는 주님기쁨의교회 시절 3년을 거쳐 대구서현교회로 왔어요. 최영욱 목사님과 같은 시기에 서현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자녀들도 또래가 비슷해서 가족끼리 좋은 교제가 있었어요. 이후에 최 목사님이 범어교회로 먼저 오셨고, 저를 좋은 동역자로 추천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범어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Q. 범어교회에선 실버교구와 모세대학을 오래 섬기셨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으셨나요? 결혼이 가능하게 된 목사 안수 후 첫 세례부터 어르신들 통한 은혜가 있으신 게 아닌지? ^^

A. 그게 그렇게 연결되나요? ^^ 부임하고 실버교구를 처음 맡았을 때 장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복음 안에서 소천하실 때까지 잘 위로해드리고, 소천하신 후엔 자제분들에게 어르신들의 믿음을 잘 전해드려야겠다는 맘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정화 전도사님과 최대한 심방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환자실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많이 주셨고, 그 기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큰 은혜를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냐는 질문에 “아멘”하고 천국 소망에 응답할 때 주시는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Q. 그럼,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일과 보람된 일은 어떤 것이었나요?

A.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교회 안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때입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신뢰

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던 이들이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며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는 목회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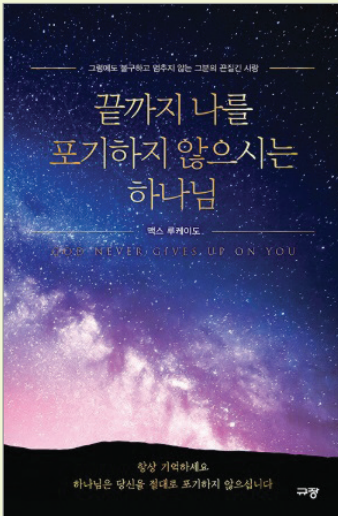
Q. 목회자로서 평생의 기도 제목과 최근에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A. 최근에 응답받은 것은 아내와 함께 기도하던 것이네요. 오랫동안 루게릭병으로 고통받던 장모님을 위해 “마지막만큼은 편안하게 천국 가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명절 직후 장모님께서 정말 고통 없이 평안하게 소천하셨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의 평안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평생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 받는 종이 되는 것, 코람데오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이, 맡겨주신 자리를 기쁘게 순종하며 지키는 것, 그리고 교회를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 세우는 것이 제 평생 기도제목입니다.

• 정리 교회보팀

우리 같이 걸을까요?

산책(冊)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맥스 루케이도, 규장, 2023)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 늘 어긋났다. 속이는 자였고, 도망자였다. 감사하지 않았고, 어려움 앞에서 그분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를 향한 당신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다.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잘못에 달려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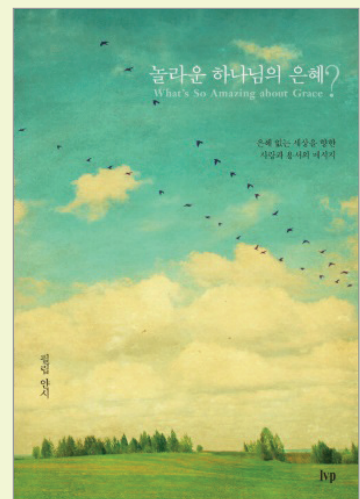
“야곱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겠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위해 존재한다. 그 대답은, 위안을 주며 울려 퍼지는 대답은, “그렇다”이다. 순전한 은혜다. 은혜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이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따라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아들을 보시겠다는 뜻이다. 그 어떤 죄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다.” 본문 中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필립 양시, IVP, 2020)

우리는 우리가 의롭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유혹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 최악의 모습일 때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는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내가 건네는 사랑이 달라진다.

“우리는 가증한 존재일 수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다.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은혜로 치유된 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풍성히 부여하신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음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는 것이다.” 본문 中



11월의 범위

이 외에도 많은 행사가 지난 달에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pomo.net>



새가족 만남의 날 | 2일(주일) 오후예배 후, 2025년 새가족들이 함께 모인 ‘새가족 만남의 날’ 행사가 새가족위원회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소년부 가을운동회 | 9일(주일)에는 소년부 열매잔치 및 가을운동회가 정화여고에서 있었습니다.



성경고사대회 | 8일(토) 오후 1시 성덕교회에서 대구 수성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제 27회 성경고사대회가 있었습니다.



영어예배부 버스킹 | 9일(주일) 오후 2시 수성못 포켓 2 야외무대에서 영어예배부 버스킹 공연이 있었습니다.



수능기도회 | 13일(목) 수능기도회가 2층 예루살렘채플에서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찬양축제 | 16일(주일) 오후예배 시간에 추수감사절 찬양축제가 있었습니다.



가정 세미나 | 21일(금) 금요기도회 시간에 주일학교위원회 주관으로 '가정의 신앙 교육과 가정 예배의 중요성' 이란 주제로 가정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연탄 나눔 행사 | 22일(토) 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중구 행복 나눔의 집에서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성탄 점등식 | 30일(주일) 오후 예배 후 시설위원회 주관으로 교회 정문 앞에서 성탄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범어‘인(人)’의 얼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들

작은 섬김이지만 얼어붙은 골목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온기가 스며들어 이웃을 품는 기쁨을 경험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범어범어(泛魚凡語)

“나의 기쁨의 이유가 사람의 칭찬과 유세가 아닌 그리스도의 흔들림 없는 불드심 이야 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비난과 야유가 아닌 그리스도의 긴 침묵이심을 항상 깨어서 분별하여야 한다”

주일 설교 중

“금이 가고 깨지는 순간은 늘 아프지만, 오히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드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견고하게 닫혀 있을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은혜가 상처 난 자리로 들어오면서요”

사랑방 모임 중

“내 인생이 비참하고 가치없게 느껴질지라도 ‘겉으나 아름다운’ 인생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아야 한다”

주일 설교 중

“삶의 흥년을 지날 때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면 겸손히,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

주일 설교 중

“안다고 생각하면 위험한 것 같아요. 존중 respect 가 re 다시 spect 보다. 다시 보다 보니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새롭게 낫설게 다시 보다 보면 존중하게 되더라구요.”

바울청년회 나눔 중

범어동정(泛魚動靜)

한 달 동안 범어인의 상황과 이동

■ 처음 나온 아기

- 임도예(임명성 집사, 양효민 집사)
- 변하음(변준무 집사, 정유민 집사)
- 백강훈(백종민 집사, 강주영 성도)
- 김태오(송은혜 성도)
- 김솔(김진현 강도사, 곽령은 전도사)

■ 수상 | 최대영, 박주희B 성도 : (주)파미티 국제IT박람회 CES 2026

대구 최초 AI 2개 부문 혁신상 수상

■ 공연 | 이현창 집사 : '영동군 난계국악단' 11월 18일 오후7:30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 개원 | 전종화 집사 : 청라빛안과, 달구벌대로 2012 (청라언덕역 8번 출구)

■ 출산 • 최의진 집사(전재민 집사) 득남 10월 30일

• 김재이 성도(이동영 성도) 득녀 11월 14일

■ 결혼

- 장정자 집사의 장남 김용운 군 : 11월 1일 1시 30분, 아현정
- 김경태B 집사(진용애 집사)의 장남 김한기 군 : 11월 2일 3시 10분, 인터불고엑스코
- 노규희 전도사의 장남 이동훈 군 : 11월 8일 1시 50분, 중앙컨벤션센터
- 이종석 안수집사(마경심 집사)의 차남 이영빈 군 : 11월 8일 6시 30분, 빌라드지디 청담
- 이명화B 집사의 장녀 박은주 양 : 11월 9일 1시, 스타디움 컨벤션웨딩
- 엄정복 장로(박옥수 권사)의 차남 엄한석 군 : 11월 15일 11시 50분, 아리아나호텔
- 남경희 안수집사(구성희 집사)의 차남 남상민 군 : 11월 15일 1시, 안동 그랜드호텔
- 이구택 안수집사(권순연 집사)의 장녀 이희진 양 : 11월 15일 3시 10분, 호텔수성 수성스퀘어
- 김성민C 집사(허윤정 집사)의 아들 김지환 군 : 11월 22일 11시 남서울교회
- 전수경B 집사의 장남 박진우 군 : 11월 22일 3시 30분 호텔인터불고
- 이경태 협동안수집사(구영하 협동권사)의 차남 이동형 군 : 11월 29일 2시 30분, 노비아갈라웨딩

12월 교회 행사 안내

- 6일(토) : UPS 수료 컨퍼런스 14:00, 갈릴리채플
- 7일(주일) : UPS 수료 및 졸업예배 (오후)
(강사: 이정환 목사, 남산교회)
- 14일(주일) : 장영일 원로목사 설교
은퇴감사예배(오후) 축사: 장영일 원로목사
- 21일(주일) : 성탄절 칸타타 (오후)
- 25일(수) : 성탄예배 1부 9:50, 2부 12:10(유아세례)
- 28일(주일) : 정기당회 / 주일학교 교사총회(오후)
- 31일(수) : 송구영신예배

12월 주일학교 행사 안내

- 1일(월) : 19:00 하나바이블 컨퍼런스,
화원교회(교역자)
- 3일(수) : 5:30~23:00 고등부 졸업여행, 제주도
- 6일(토)~매주 토요일 (4주) : 9:00~12:30
청소년 선교 훈련 'WAVE'
- 18일(목)~19일(금) : 2026 주교교역자 리트릿,
부산 기장
- 19일(금) : 20:00 성탄발표회
- 28일(주일) : 16:00 교사총회

편집장 | 허윤정

부편집장 | 이영선C

편집위원 | 김동영, 김성애B, 김수민, 김정모, 김현성,

서정주, 손명진, 신규식, 여경진

자문위원 | 박용수, 배지연, 조성희A, 이창권

사진 | 미디어위원회

디자인 | design Jabez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범어교회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범어교회보 | 1986. 5. 25 창간



보내는 선교사 '센더'로 함께 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중보기도팀

선교지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매월 마지막 금요일 세계선교기도회 참석 및 준비
선교기도편지(격월 발간) 구성

선교사가족 지원팀

우리 교회 파송 및 협력선교사 가족(부모 및 자녀) 돌봄
- 어버이날, 설, 추석, 생일 등 방문
- 정기적인 안부 인사
- 필요시 병원 등 동행

*위 분야 외에도 세계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1. QR 스캔해서 신청
2. 총무 박순만 집사 010-3524-5287 에게 신청



'센더(Sender)' 란? 선교사를 보내고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선교는 건강한 센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센더로의 부르심, 역할 그리고 사명... 센더로서 선교에 동참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